과천 놀래킨 '빡빡우 호랑이'

metro
메트로 2013년 11월 25일 월요일 제2853호 www.metroseoul.co.kr

크레용팝 의상표절 논란

대기업 인사태풍 '변화의 봄' 예고

KT·포스코 회장 교체 이어 내년 상반기 25개 그룹사 CEO 61명 임기만료

최근 이석채 KT 전 회장과 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이 잇따라 자진 사의하고 내년 상반기 국내 50대 그룹 상장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전문경영인 중 61명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재계 주요 기업의 인사 태풍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4일 기업분석 전문업체 한국CXO연구소의 '국내 50대 그룹 내 상장사 전문경영인의 2014년 상반기 임기 완료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동부 7명, 포스코 6명, KT 3명 등 25개 그룹사 61명의 최고경영자(CEO)가 내년 상반기 임기 완료된다.

KT와 포스코는 사령탑이 교체되면 자연스레 경영진의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포스코는 민영화 이후 외부 인사 출신 회장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경영진의 대규모 인사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CEO 교체에 따른 어느 정도의 경영진 인사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KT는 KTcs 임덕래 사장, 나스미디어 정기호 사장, KT서브마린 이재운 사장 등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포스코는 박기홍·김준식 사장을 비롯해 포스코강판 신정석 사장, 포스코엠텍 윤용철 사장, 포스코켐텍 김진일 사장, 포스코ICT 조봉래 사장 등이 내년 3월 재임 기간이 공식 마감돼 이들의 연임 여부가 주목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부그룹은 최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동부하이텍과 동부메탈 등 주요 계열사와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매각이 확정된 동부하이텍 오영 회장과 최창식 박용인 사장 등 3명이 내년 3월을 끝으로 공식 임기가 완료되면서 이들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같은 달 임기가 끝나는 동부건설 이순병 부회장, 동부CNI 곽제동 이봉 대표이사,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동부증권 고원종 사장도 내년 초 연임 여부 등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다음달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그룹의 인사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미 올해 9월 이후 제일모직 패션 사업의 삼성에버랜드 이관, 삼성SDS와 삼성SNS의 합병, 삼성코닝 지분 정리 등 많은 변화를 거치며 3세 경영권 승계 작업과 맞물려 삼성그룹의 인사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삼성SDI 박상진 사장, 삼성카드 최치훈 사장, 삼성물산 김신 사장 등의 공식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이며, 삼성생명 박근희 부회장도 내년 6월까지가 임기 시점이어서 이들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이 밖에 롯데, LG, 한화, OCI, KCC, LS그룹 등에도 내년 상반기 임기 만료를 앞둔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적 부진과 총수 공백 등의 이유로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어느 때보다 대대적인 인사 태풍이 예상된다"면서 "다만 이들의 인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는 그룹 내에서 특정 의미를 담아 결정하는 만큼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6면>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미세먼지 씻는 가을비 … 흰눈 입을 트리도 세수 마지막 가을비가 내리는 24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기상청은 25일 아침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치는 낮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이번 비로 서울을 뒤덮었던 미세먼지도 씻겨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저작권 만료' 자료 100만건 푼다

문학 속 한국 방언 등 공공 데이터 100만 건이 국민에게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안전행정부와 협력 사업을 통해 국립국어원(표준 국어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정보), 한국문화정보센터(전통 예술 정보) 등 공공 데이터 100만 건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국립국어원의 겨레온 우리말, 남북한 언어사전, 국가별 한국 방언, 문학 속 한국 방언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우리말 정보 24만여 건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 정보,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공유 저작물 정보 등 산업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저작권 정보 80만 건으로 구성됐다.

문체부는 "이번에 개방하는 공공 데이터는 생활에 필요하고 산업적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정보들"이라며 "민간 개발자들이 스마트폰 앱 개발 등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 홈페이지와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 오픈 API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유선준기자

관동대학살 '쇠갈퀴 만행' 충격

23만 피살자 명부 분석
174명 유공가 추가될듯

일본의 관동(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의 참혹성이 '일본 진재시 피살자 명부'를 통해 속속 드러났다.

명부에는 정용자의 귀환과 미귀환 여부가 표기돼 있고 '쇠갈퀴로 개잡듯이 학살', '죽창으로 복부를 찔렸음', '곡괭이로 학살' 등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다.

24일 국가기록원 등에 따르면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발견된 23만명의 명부 67권을 분석한 결과, 174명이 순국자로 새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부에 실린 관동대지진 피살자 290명, 3·1운동 때 피살자 명부에 일부 포함된 52명 등 342명 중 실제 피살자는 198명이다. 나머지 144명은 3·1 운동 관계자나 독립운동 참가자, 강제동원된 사람들 연도 등 착각해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보훈처 김성만 박사는 "독립유공자로 선정돼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면 유족은 최고 한 달에 174만8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조훈기자

이사 임박 세입자에 전월세보증금 담보 대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계약 종료 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못 가고 있는 세입자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를 출시했다.

대상자는 기존에 살던 집의 전월세 보증금과 이사 갈 집의 전월세 보증금 중 선택해서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 대출 시 중도상환수수료, 보증보험료 등도 면제된다.

문의 (02) 2133-1596

염수정 대주교 "정치는 사제의 일 아냐" 염수정(왼쪽 둘째)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대주교가 24일 명동대성당에서 신앙의 해 폐막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염 주교는 "복신도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당연의 의무이지만 사제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는 잘못된 일"이라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의 '연평도 발언'을 지적했다. /연합뉴스

"연평도 앞 고해성사를"

전주교사제단 "한미 군사행동 탓 北 포격" 발언에 군·정치권 비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이 지난 22일 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한·미 군사행동이 연평도 포격 촉발"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이 강하게 비난하는 등 냉각 정국이 더 심화됐다.

국방부는 24일 "북한은 3년 전 우리 영해에서 실시한 정상적인 사격훈련을 빌미로 삼아 연평도 포격 도발을 자행해 우리 장병 2명과 무고한 국민까지 희생시켰다"며 "북한의 도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의 북방한계선(NLL) 수호 의지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등도 이날 "거짓을 진실로 말하는 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창신 신부의 연평도 포격 발언은 국민 앞에 고해성사하고 석고대죄할 일"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 대통령과 여당이 어느 측면에서는 자초한 일"이라고 사제단의 입장을 거들었다. 다만 "신부들의 충정은 이해 가지만 연평도 포격과 NLL에 대한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확실한 선을 그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제단 미사라는 변수까지 등장해 이번주부터 본격 시작되는 여야의 입법 예산전쟁에도 가파른 전선이 구축되는 형국이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공공기관 '청년 정규직' 2만7000개 신설

내년부터 3년간 공공기관에 만 15~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전일제 정규직 일자리 2만7000개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관장 부처로서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시행 공문을 유관 부처와 대상 공공기관에 보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대상기관 401곳의 정원은 25만3707명이었고 여기에 채용 비율 3%를 적용하면 총 8951명의 신규 채용 규모가 산출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한 해 9000여 개를 늘려 3년간 2만7000개 안팎의 신규 일자리가 공공기관에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윤다혜기자

'학원 문제' 커닝한 수능

세계지리·수학영역 출제 오류 이어 영어 일부 문항 '베끼기' 논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출제 오류 논란 속에 영어영역 일부 문항이 학원 교재와 거의 같게 출제됐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24일 학원가에 따르면 영어 B형 일부 문항이 사설학원 교재의 문제 유형이 같은 것은 물론 보기까지 비슷하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EBS 교재 연계 문항이기 때문에 지문은 같을 수 있지만 출제 방식까지 같다는 것은 문제를 내는 과정에서 기출문제인지, 시중 교재에 나온 문제인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영어 B형 39번 문항은 EBS 교재에는 '빈칸 추론' 이지만 수능에서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 찾기'로 변형됐는데 유형뿐 아니라 해당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제시된 보기 5개 중 4개가 대성학원 인터넷 동영상 강의 서비스인 '대성마이맥'의 한 영어강사가 만든 수업 자료와 일치했다.

수학영역은 A형 18번 문항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흰색 탁구공 8개와 주황색 탁구공 7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 없이 나눠 주려고 할 때 학생들이 흰색과 주황색 탁구공을 각 1개 이상 갖는 경우의 수를 묻는 문제다.

그러나 평가원 게시판을 보면 문제에서 같은 색의 탁구공을 구별하는지가 명시되지 않아 수험생들이 혼란을 느꼈다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

앞서 논란이 된 세계지리 8번 문항과 관련해선 이르면 다음주 중 집단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김민강기자 mkim@metroseoul.co.kr

알림

클래식과 함께 '아듀! 2013'

메트로신문 송년음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겨울밤을 따스하게 만들 감동의 클래식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내 최대 무료 신문 메트로는 2013 사랑의 송년음악회 '러브스토리 인 디셈버'를 개최합니다.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로 펼쳐질 이 음악회는 마에스트라 여자경이 지휘봉을 잡아 로시니의 걸작 오페라 세미라미데 서곡을 비롯해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G단조, 요한 스트라우스의 유람열차 폴카,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등 주옥 같은 작품들을 연주합니다.

특히 최정상급 성악가 소프라노 서활란과 지난해 오스트리아 국제 벨스 가보르 벨벤데리 성악 경연대회 우승자인 테너 김병진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을 감동의 향연으로 이끕니다. 클래식 기타의 샛별 원덕현도 출연해 따스한 음색을 더해줍니다.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에서 신청하면 250명(각 1인 2매)께 무료 관람의 기회를 드립니다.

▲일 시: 12월 11일(수) 오후 7시30분 ▲장 소: 세종M씨어터

metro

모피 안 입는 그대가 '예쁘고 멋쟁이' 24일 오후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동물 학대 없는 패션쇼 '제2회 사랑을 입다' 행사에 참석자들이 모피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혈 송년회' 참가하면 '피자 파티' 후원합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연말까지 송년회 문화를 생명 나눔과 기부 문화로 연계한 '헌혈 송년회' 이벤트를 실시한다.

대상자는 대한적십자사 전국 135곳의 헌혈의집과 헌혈버스에서 헌혈에 참가하는 3인 이상 50인 이하의 모든 단체로, 헌혈 후 기념품 대신 희망풍씨 기부권을 선택하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이벤트 메뉴에서 응모하면 된다.

당첨은 추첨으로 결정돼 희망상 1개 팀에 피자 10판, 사랑상 5개 팀에 피자 5판, 행운상 20개 팀에 피자 3판을 선정, 내년 1월 15일 발표한다.

'빠삐용 호랑이'에 식겁한 과천

서울대공원서 탈출소동 사육사는 목 물려 중태

24일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우리를 탈출하려던 호랑이 한 마리가 사육사를 물어 중태에 빠뜨리는 사고가 벌어졌다.

과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8분께 서울대공원의 수컷 시베리아호랑이(3·사진)가 사료를 놓던 사육사 심모(52)씨의 목을 물었다. 심씨는 인근 한림대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사육사에게 부상을 입힌 호랑이는 이후 우리를 빠져나와 주변에 있던 관람객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대공원 측은 탈출한 호랑이를 우리로 다시 들어가게 유도해 탈출 소동은 일단락됐다.

서울대공원에서는 2010년 12월에도 말레이곰 '꼬마'가 탈출했다가 9일 만에 포획된 바 있다. /송다혜기자

'골골한' 서울대생…96% 비타민D 부족

서울대 학생들이 햇볕을 쬐는 시간이 부족해 20대 성인 평균보다 비타민D 수치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 4~5월 학부생과 대학원생 5239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학생 정기건강검진 결과, 비타민D 결핍 또는 부족한 학생 비율이 96.2%(남학생 95.7%, 여학생 96.6%)였다. 결핍(혈중 농도 10ng/㎖ 미만)인 학생 비율도 남학생 39.9%, 여학생 51.5%에 달했다.

조희경 보건진료소 교수는 "실내에서 공부하느라 해를 자주 보지 않은 학생이 많은 게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다혜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경희사이버대서 스포츠경영

경희사이버대학교가 내년 스포츠경영학과를 신설한다.

스포츠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 스포츠를 통한 자기 계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한편 다음달 2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201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문의 02)959-0000

성신여대 박태환 초청 특강

성신여대가 최근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을 초청해 특강을 열었다. '도전의식과 목표 설정 이라는 주제로 3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80분 동안 진행됐다.

박태환은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12 런던올림픽 은메달 성과를 거두기까지의 고난과 역경을 설명했다.

한국장학재단·고용청 협약

한국장학재단이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학자금대출자 취업 연계 신용회복지원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채용 확정자에게 신용유의정보 해제와 연체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구직자에게 취업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 결정을 지원한다.

만원버스 못탄 女 '막장 복수극'

metro HongKong

뒷문 매달린채 남편 불러 '승용차 바리케이트' 저지

"내가 차에 타지 못하면 아무도 갈 수 없다."

최근 중국 장쑤성에서 한 여성이 혼잡한 출근길에 버스를 타지 못할 것 같자 애미 탄 승객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교통을 마비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이 여성은 만원 버스에 비집고 오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도저히 공간이 없어 탈 수 없었다. 그러자 그는 "자리를 비켜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차 뒷문을 잡고 놓지 않았다.

많은 승객들은 "정말로 자리가 없다. 능력이 있으면 타라"고 말했다. 한 남성 승객이 "모두 출근 중이고 빨리 안 가면 지각한다.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뺏지 마라"고 말하자 화가 난 여성은 이 남성과 말싸움을 하며 뒷문을 손으로 잡고 한 발은 차 위에 올려놓은 채 계속 버텼다. 이 여성은 전화로 남편까지 불렀다. 약 10분 뒤 승용차를 타고 온 남편은 버스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아예 그 앞을 가로막았다.

승용차가 20분이나 막아서고 있자 승객들은 어쩔 수 없어 다른 차를 타기 위해 하차하기 시작했다. 교통을 마비시킨 부부는 그제야 분이 풀린 듯 승용차를 타고 사라졌다. /정리=조선미기자

'항공기내 휴대폰 통화' 하지마!

美 허용추진에 승객들 "반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항공기 내 휴대전화 통화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과 관련, 업계 반발이 거세다고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FCC는 항공기가 지상 1만 피트(2048m) 이상에서 비행할 때 승객들이 휴대전화와 무선 인터넷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항공업계와 소비자 단체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비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 경우 다른 승객의 휴식에 방해가 되고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톰 휠러 FCC 위원장은 "규정 개정은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면서 "항공기 내 휴대전화 통화에 대한 최종 결정은 연방항공청(FAA)과 각 항공사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당수 승객들이 항공기 내 전화 통화를 금지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17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가 휴대전화 통화 규정을 바꾸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조선미기자

하늘로 쏜 '센카쿠 갈등'

中 '방공식별 구역' 설치 선포·정보수집기 띄우자 日 전투기 발진

중국과 일본의 영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24일 일본 방위성은 전날 중국군 정보수집기 2대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북방 동중국해의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진입,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다고 밝혔다.

일본 영공 침범은 없었지만 중국 정보수집기 한 대가 센카쿠 영공 약 40㎞까지 접근했고, 또 다른 정보수집기는 센카쿠 북방 약 600㎞ 부근 동중국해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 공군은 새 구역에서 첫 번째 순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형 정찰기 2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23일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하겠다고 선포, 일도를 뒤흔들었다.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관료들을 불러 즉각 대응책을 논의하고, 센카쿠 주변의 경계 및 감시 강화를 지시했다.

일본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이번에 설정한 구역이 일본이 이미 설정한 방공식별구역과 상당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이 안에는 양국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도 물론 포함된다.

그간 항공자위대는 일본이 설정해놓은 방공구역에 중국 항공기가 진입할 경우 일본 영공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전투기를 긴급 발진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도 방공구역을 설정, 앞으로 센카쿠 영공에서 양국 전투기가 만날 횟수가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예측 불허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일본 정부가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이다. /조선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미국은 이미 '블랙프라이데이 시즌' 미국 연말 소비 시즌이 시작되는 오는 29일(현지시간)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23일 뉴욕의 한 쇼핑몰로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11월 마지막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 금요일로 소개 유통업체들은 4~5일 전부터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들어간다. 전미소매연맹(NRF)은 이번 연말 소비 매출이 지난해보다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AP 연합뉴스

이란 핵협상 10년만에 타결

이란과 서방 국가들의 핵 협상이 24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됐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은 핵 프로그램과 관련 합의를 이뤘다.

협상 당사국들은 이란에 대한 유엔 안보리와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이란 핵 프로그램을 규제하게 된다. 제재 조치가 완화되면 이란이 얻게 될 경제적 가치는 향후 6개월 간 61억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동결됐던 해외 자산 42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고, 수출이 금지됐던 석유화학 제품 등 19억 달러어치를 해외에 내다팔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올해 중도 성향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이란에서는 10년간 결실이 없었던 서구권과 핵 협상에 진척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조선미기자

50세	60세	70세
월 6,990원	월 11,700원	월 39,060원

치매 간병비 5천만원을 한꺼번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최초 1회한)

명품치매보험

치매간병비 II(중증치매) 5천만원(최초 1회한)
중증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부가서비스 - 간병도우미 1회 3만원(연 5회)

7대 질병 수술비 50만원 보장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 5백만원 한도(Active 보험금)

☎ 1644-9265

기본계약			선택계약				
Active 보험금			치매간병비 II(중증치매)			7대 질병 수술비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50~80세	5,770		50세	1,040	2,760	140	90
			60세	5,630	13,380	300	180
			70세	32,920	66,700	470	350

30세	40세	50세
월 15,770원	월 20,070원	월 29,250원

암 진단비 2천만원 보장!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하며,
가입 후 2년 미만에는 50% 지급,
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 지급

무배당 Super 큰병이기는보험

암 진단비 2천만원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하여 최초 1회한 지급
최초 계약 후 2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액의 50%만 지급
기타 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 지급

뇌졸중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최초 계약 후 2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액의 50%만 지급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최초 계약 후 2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액의 50%만 지급

골절진단 · 수술 의료비용, 화상진단 의료비용 1천 5백만원 한도

☎ 1577-6429

기본계약		선택계약						
연령	남자/여자	연령	암 진단비 남자	암 진단비 여자	뇌졸중 진단비 남자	뇌졸중 진단비 여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남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여자
		30세	1,440	4,340	600	360	500	150
	13,230	40세	4,050	9,750	1,760	880	1,080	380
		50세	9,600	11,220	4,490	3,100	1,760	770

market index <22일>

코스피	코스닥
2008.23 (+12.45)	504.06 (+3.01)
금리	**환율**
2.85 (-0.03)	1061.00 (-0.05)

뉴스 & 뉴스

중기 경기전망 2개월째 하락

●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월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가 전월보다 3.2포인트 줄어든 88.7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공업이 86.3, 중화학공업은 90.9로 전월보다 각각 4.3포인트, 2.2포인트 낮아졌다. 기업 규모별로 소기업은 85.7, 중기업은 96.8로 각각 4.0포인트, 1.1포인트 하락했다. 중기중앙회는 내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절적 비수기가 도래해 경기 불안심리가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국명기자 kmlee@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2	4	20	34	35	43	14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565,897,769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43,135,114
3등	5개 숫자 일치	1,358,829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9
부산광고문의 051)559-2800
독자센터 02)721-9866
2002년 5월 31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라 09...

KT "CEO 인사 낙하산 없다"

절차 투명성 위해 추천·공모 등 다방면 후보자 모색

KT가 신임 최고경영자(CEO) 선임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24일 KT 이사회에 따르면 이석채 전 회장의 후임 CEO를 추천하기 위한 'CEO 추천위원회'가 25일 열린다.

당초 신임 CEO 선임을 이사회 단독 추천으로 진행할지 공모 절차를 통해 진행할지 여부를 고민했으나 최근 낙하산 인사 논란, 비리 백화점 등 목소리가 나오며 논란이 일자 절차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CEO 추천위원회는 자체 후보자 추천뿐 아니라 공모 접수, 헤드헌터업체 등 외부 추천 등 후보자 선정을 위한 다방면의 모색에 나설 방침이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모집한 다수의 후보자들 중 검증을 거쳐 최종 후보자 1인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렇게 CEO 추천위를 통해 결정된 최종 후보자 1인은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주주총회 2주 전 소집 공고 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년 1월 초께 임시주주총회에서 KT의 새 수장이 선임될 공산이 커 보인다.

KT는 5년 전 남중수 전 사장에 이어 이번 이 전 회장까지 각종 비리 혐의와 낙하산 인사라는 불명예를 안고 CEO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 때문에 KT CEO가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자 새 CEO 후보는 돈보다 명예를 안고 투명 경영을 할 수 있는 인사가 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KT가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나기 위해선 통신 시장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사람이 새 CEO 자리에 앉아야 한다"면서 "고액의 연봉도 대폭 삭감하고 투명 경영을 앞세워 돈보다 명예를 앞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다양하다. KT 출신으로 표현명 회장 직무대리를 비롯, 최두환 전 KT 사장, 정지관 출신으론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거론된다. 삼성전자 출신으론 홍원표 사장,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양한 후보군 속에 각각 장단점이 있어 특별히 앞서는 후보가 없어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라는 분위기다.

한편 KT는 새 CEO 선정에 있어서 ▲경영 경제에 관한 지식 ▲경영 경험 ▲기타 최고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최적의 인물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20년만에 평촌 새 아파트 분양 '구름인파' 포스코건설이 22일 연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견본주택에는 방문객들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 기다리며 평촌에서 20년 만에 분양하는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보여 사흘간 3만4000여명이 찾았다고 24일 밝혔다.

/포스코건설 제공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부터 국민주택채권 횡령까지

국민은행 3개 특검 동시에

국민은행의 부실·비리 의혹이 연이어 터지면서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으로 시작된 금융 당국의 특별 검사는 국민은행이 투자한 센터크레디트은행(BCC) 부실, 베이징지점 인사 파문, 보증부대출 이자 부당 수취, 본점 직원의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사건까지 확대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민은행에서 불거진 인사 파문과 부실·비리 혐의 의혹과 관련해 내부 통제 미흡으로 실무진에서 행장까지 제대로 보고가 안 된 총체적인 문제로 판단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25일부터 국민은행에 검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 보증부대출 부당 이자 수취 건과 내부 직원의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사고를 특별 검사한다. 지난 21일 국민은행 자체 조사 과정에서 내부 직원의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은행 본점 신탁기금본부 직원들이 국민주택채권을 포함한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파는 수법으로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직원의 제보로 본부 자원의 자체 조사 결과, 국민주택채권의 위조·행사 사실을 밝혔다"며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직원이 위조한 뒤 친분 관계가 있는 직원을 이용해 지급 제시하는 수법을 썼다"고 전했다.

/송신지기자 mina@

라이나생명

나이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암·치매·사망

지금, 라이나에서 실버를 위한 다양한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61~80세라면 100세까지 길게 다양한 암 보장

라이나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

- ☑ 61세에서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실버전용 암보험
- ☑ 사시는 내내 암치료비 걱정 더시라고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
- ☑ 위암·폐암·대장암 같은 각종 일반암은 물론 백혈병·뇌암·골수암도 빠짐없이 보장, 요즘 빈발하는 전립선암·갑상선암·유방암·기타 피부암도 보장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음 *1회한, 암 종류별 보장내용 및 보장개시일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조

50~81세라면 나이·건강 상관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

라이나 무배당 **OK실버보험**(갱신형)

- ☑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 일시금 지급
- ☑ 질병, 재해, 사고 등 각종 사망에 대해 보장

*계약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지급

- ☑ 재해사망은 일반사망보험금의 2배를 가입 당일부터 보장

*최초 계약 7년 만기 후 5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으로 갱신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나이와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고의적 사고 및 가입 2년 이내 자살은 보장하지 않음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없음

45~70세라면 경증치매로 한 번 중증치매로 한 번 두 번 보장

라이나 무배당 **THE큰보장**실버보험

- ☑ 치매 초기부터 관리할 수 있도록 경증치매부터 보장
- ☑ 재해로 인한 입원, 골절, 화상 수술 보장 (선택 특약)
- ☑ 노년에 흔히 하는 폐렴, 천식, 간질환, 신장질환으로 인한 수술비 보장 (선택 특약)
- ☑ 처음 보험료 그대로 갱신 없이 80세까지 보장

*가입 후 2년 후에 경증치매 또는 중증치매로 진단확정 시 치료보험금 지급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24시간 무료 상담문의

080-325-1100

70인치 티비가 270만원대 24일 서울 을지로 SK빌딩에서 열린 [illegible] 출시행사에서 도우미들이 [illegible] TG삼보가 위해 출시한 270만원대 '70인치 스마트TV'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진격의 삼성

올 반도체 시장 2위 수성
인텔과 격차 4.3%P 전망

삼성전자가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1위 인텔을 바짝 추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하며 인텔과의 격차를 좁혔다.

24일 시장조사기관인 IHS 아이서플라이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반도체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7.0% 증가한 334억56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점유율은 10.9%로 지난해(10.3%)보다 높아지면서 세계 2위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매출액이 312억64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300억 달러를 넘고 점유율이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반면 1위인 미국 인텔은 올해 반도체 매출액이 469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474억2000만 달러)보다 1.0% 줄고,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15.7%에서 14.8%로 줄어들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인텔과의 점유율 격차는 지난해 5.4%포인트에서 올해 4.3%포인트로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훈기자 zen@

"예비부부 역세권 소형<1억원대> 사라"

금융가 사람들

■ KB 임채우 부동산전문위원

수도권 외곽 2억이하 주택 수두룩…발품 팔아야
신축 빌라 경쟁력 있어…집값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예비 신랑 신부. 하지만 전세난이니 월세난민이니 없어서 아무리 따들어도 실감 다지 않던 상황들을 직접 경험하는 과정에서 인생 최대의 난관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특히 만만치 않은 전세금은 어떻게 마련했다 치더라도, 이렇게 비싼 값에 전세를 구할 바에는 차라리 집을 사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하다.

이에 대해 임채우(사진)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난 19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수도권 외곽지역에는 찾아보면 아직도 2억원 이하의 주택들이 많다"며 "교통 좋은 1억원대 소형 주택을 사서 시작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수도권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2억121만원에 달한다. 서울이 2억8201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경기와 인천지역도 각각 1억6801만원, 1억1607만원이다. 2억원 이하 주택을 눈여겨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임채우 전문위원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위협하는데도 사람들이 전세로만 몰리는 이유는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 최근 5년간 집값은 충분히 빠진 상태"라며 "부동산정책이나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내려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이에 대해 더 내리지는 않아도 오르지도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그는 "투자 관점이 아닌 거주 관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며 "전세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스트레스, 2년마다 이사 다니는 데 따른 불편함과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집을 사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가 3~4인에서 1~2인 가구로 빠르게 변하면서 소형 주택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 실제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빌라도 아파트에 비해 70~80%가량 가격이 저렴한 데다 수요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새 건물 위주로는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많이 다니고 많이 봐야 좋은 부동산을 고를 수 있는 혜안이 생긴다"며 "따로 시간 낼 필요 없이 주말에 데이트로 모델하우스나 부동산을 둘러보며 미리 발품을 팔아둔다면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원하는 적정 가격의 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illegible]

1조원의 국가시책사업,
천만원으로 성공창업에 도전하세요!

창업성공은 타이밍이다!
미랜 Green Store

창업성공 "녹색"이 답이다!
환경문제는 이제 생존의 문제
미랜 Green Store를 만나는 순간
인류의 녹색혁명이 시작된다!

無점포 · 無재고 · 無추가비용

쓰레기가 없어졌어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손으로 꾹꾹 눌러 담았다고요? 남은 음식물을 불편하게 모아두지 말고 바로 바로 없애버리세요. 음식물의 95% 이상을 완전히 없애주는 미랜 음식물 바이오처리기! 우리나라 음식물에 강한 80여 종의 친환경적 미생물이 비밀입니다

■ 냄새가 없어졌어요!

온종일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참고 계셨다고요? 99% 완벽하게 냄새를 없애주는 하이브리드 탈취장치로 끝! 21종의 규제 악취와 유해물질까지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 세균이 없어졌어요!

부패한 음식물에서는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이 우글우글~ 금속이온 산화촉매방식, 특별한 탈취장치로 해결하세요. 자외선을 통한 산화반응으로 각종 바이러스도 99% 제거완료!

세계유일 無배기호수 無침출수 無악취실현

악취 NO / 환경오염 NO / 설치·시공 NO / 추가비용 NO

국내최초 성공창업 보장시스템

창업설명회

일시 : 2013년 11월 28일(목) 오후2시
장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42-1106 에이스하이엔드타워 6층 (주)미랜
주최 : (주)미랜

※ 창업설명회 선착순 사전예약

milen (주)미랜 문의 1599-3158 010-7258-1313

실버암보험 80세도 첫가입 OK!

라이나 무배당 상품 눈길

라이나생명보험이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 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이다.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특히 이 상품은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 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 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서 추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면서 암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약을 함께 개발했다. 무배당 실버암사망특약(갱신형) 가입을 통해 보험 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갑상선암은 갑상선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 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문의 080)951-8585

우편번호 다섯자리 된다

2015년 8월부터 우편번호 자릿수가 현행 6자리에서 5자리로 줄어든다. 우정사업본부는 도로·하천·철도 등을 기준으로 새로 설정한 국가기초구역 번호를 새 우편번호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새 우편번호의 처음 두 자리는 시·도, 셋째 자리는 시·군·자치구로 구별하고 미지막 두 자리는 연번(일련번호)으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미국원기자

미국 증시 '거품 주의보'

주가 따라 증권담보대출도 사상최고치 '우려'

미국 증시가 경제지표 호조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증시 거품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전날 나온 경제지표 호조의 영향이 이어지고 양적완화 축소 불안감이 엷어진 덕분에 상승세로 마감됐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54.78포인트(0.34%) 오른 1만6064.77에서 거래를 마쳤다. 전날 사상 첫 1만6000선을 돌파한 이후 다시 올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8.91포인트(0.50%) 높은 1804.76을, 나스닥종합지수는 22.49포인트(0.57%) 상승한 3991.65를 각각 기록했다. S&P500지수는 처음으로 1800선을 넘어섰다. 이 같은 강세 속에 거품 신호로 대표되는 대규모 자익 실현,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담보대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다만 최근 뉴욕증시의 흐름이 거품 붕괴의 징후가 아닌 고점 돌파 이후 숨 고르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에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경기가 개선되면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는 것은 호재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홍승표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에서 제조업종이 호조를 보이며 고용이 늘고 있고, 근로자의 임금 소득이 증가해 소비 여력이 커질 것"이라며 "부동산과 주식시장도 회복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병열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주는 미국 연말 특수 개막 직전 소비심리 개선 가능성, 국내 대기업 임원 인사에 따른 배당 기업들의 모멘텀 부각 등으로 국내 증시의 반등 흐름은 재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루스모 연탄배달 봉사 훈훈

소비자 금융 브랜드 루스모가 최근 형세 독거노인, 장애가정 등 자상위 빈곤층 가구에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고자 연탄 배달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2011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다. 254명의 루스모 전 임직원이 전국 주요 지역에서 동시간대에 연탄 배달에 직접 참여해 더욱 보람차고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루스모 관계자는 "전 임직원 사랑 나눔 봉사활동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 올해에도 실천하게 됐다"며 "연탄 배달 이외에도 전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있다면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화학 성분 없는 수분크림 스킨푸드는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KOST)와 공동기획한 재능기부 상품 '코엑스니 착한 수분 크림'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품은 일반인은 물론 화상 환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공향, 인공색소, 실리콘오일, 미네랄오일 등 10가지 화학 성분을 넣지 않고 만들었다. 특히 해당 1개가 판매될 때마다 1개를 KOST의 저소득층 화상 환자 돕기 캠페인에 기부키로 했다.

재래식 간장 '느티울'·냉장주스 '따옴'·스낵 '두부감화'

우리말 제품 늘고 있다

최근 식품업계에 우리말을 사용한 제품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과거에는 외래어 제품명이 세련돼 보인다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외래어 표기가 선호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순우리말 제품들도 대거 등장하고 있다. 기억하기 쉽고, 각 제품에서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어서다.

대상 청정원에서 최근 출시한 '느티울'은 전통 재래식 고급 한식간장 제품이다. 제품명 느티울은 '느티나무 아래 익어가는 장맛'이라는 의미로, 장맛의 본고장 순창에서 정성껏 만든 고급 간장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패키지에 새긴 제품명도 붓으로 직접 쓴 글씨처럼 디자인해 전통미와 고급스러움을 살렸다. 이 업체는 간장류에는 '햇살담은', 유지류에는 '참빛고운' 등의 순우리말 브랜드명을 사용, 소비자들에게 보다 친근하면서도 정갈한 이미지로 다가가고 있다. CJ제일제당과 풀무원도 각각 '백설'과 '찬마루'라는 순우리말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다.

빙그레 프리미엄 냉장주스 '따옴'은 자연에서 갓 따온 느낌 그대로를 담았다는 의미의 제품명이다. 합성첨가물을 넣지 않고 천연 과일의 맛을 살린 제품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동원F&B의 유제품 브랜드 '소와 나무'는 소의 넉넉한 마음과 나무의 정직함을 표현했다.

스낵 시장에 지도전장은 내민 ●도는 '감칠맛 있어 입맛을 다시다'라는 순우리말을 적용한 '두부감빠'를 선보인다. 해태제과의 인기 아이스크림 제품 중 하나인 '호두마루'도 순우리말 이름이다. 여기서 쓰인 '마루'는 '가장 높은 곳, 최상'을 뜻하는 말로 최상의 호두 맛을 담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주류회사인 무학도 순우리말 이름을 붙인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매실주인 '매실마을', 야생국화발효주인 '국화면류으리', 복분자주인 '해오름' 등이 친근한 우리말 제품명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양성운기자

불황 먹고 크는 온라인몰

생필품 매출 크게 늘어나
가격 싸고 상품구성 다양

계속되는 불황과 각종 물가 상승으로 인해 주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몰은 오히려 관련 생필품의 매출이 늘면서 특수를 누리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가격인데 온라인몰에서는 저용량부터 대용량까지 다양한 상품군을 저렴하게 선보이고 있어 원하는 구성을 선별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온라인몰에서는 생필품 구입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전문관 및 기획전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 G마켓에서는 과자, 냉동식품 등의 가공식품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한 달(10월 19일~11월 18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과자 판매는 45% 증가했다. 만두, 피자, 떡볶이 등의 냉동식품은 56% 증가했다. 즉석밥 판매량은 119%나 급증했고, 통조림·캔류는 47% 늘었다. 가공식품의 경우 비교적 유통기한이 긴 데다 대용량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 온라인몰의 대표 인기 상품으로 떠올랐다.

세탁·주방용품 등의 생필품도 특수를 누리고 있다. 같은 기간 롤화장지, 곽티슈의 판매는 24% 증가했다. 비누 판매량은 24%, 칫솔·치약은 42% 증가했다. 세탁세제와 주방세제 판매량은 각각 18%, 19% 증가했다. 물티슈 판매 역시 26% 증가했다.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용량의 구매가 용이하고 오프라인 구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

G마켓 관계자는 "생필품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가격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이 오프라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몰을 통해 장 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구매 및 배송이 간편한 건 물론이고 다양한 용량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대에 선보이고 있어 온라인 장바구니 시장은 계속 커지는 추세다"고 말했다.

/김민철기자 mms@metroseoul.co.kr

뉴스&뉴스

내달 1일까지 '와치 위크'

● **신세계백화점**이 다음달 1일까지 본점 본관 1층과 지하 1층에서 다양한 시계를 전시·판매하는 '와치 위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롤렉스, 브레게, 바쉐론콘스탄틴 등 세계적 수준의 시계 브랜드와 반클리프아펠, 에르메스 등 명품 뷰티 브랜드 등이 참여한다. 또 신세계백화점은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 응모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온+패션 '데저트 부츠'

● **크록스**가 브리티시 감성의 스타일링 아이템 '폼슨 데저트 부츠'를 출시했다. 제품은 보온성이 뛰어나고 짙은 컬러감으로 패셔너블한 연출이 가능하며 크록스가 자체 개발한 크로슬라이트 소재를 적용해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 에스프레소·카키 토페·퓨터의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13만9900원이다.

OK캐시백 서비스 강화

● **미니스톱**은 24일부터 제휴카드 서비스 일부를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T멤버십 캐쉬백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던 OK캐쉬백 적립 및 할인 서비스를 OK캐쉬백 전체 회원 대상으로 확장키로 했으며 10%였던 할인율도 15%로 확대했다. 또 다음달 27일까지 OK캐쉬백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미니스톱 전용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을 OK캐쉬백 포인트 1000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다.

저소득층 주택개선 봉사

● **카페베네**가 지난 23일 청년봉사단 5기 선수연단은행과 함께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흑석골 사랑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져진 나눔 활동을 통해 카페베네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주택 환경을 개선하고 전주 서서학동 홀몸 노인분들에게는 단●죽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활동을 통해 봉사단원들은 지원 기점의 아이들과 함께 집 외부에 벽화를 그려넣으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했다.

/정영일기자

유럽 차 판매 '10월의 질주'

4년 만에 증가세로

지난 10월 유럽차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영업 일수가 동일했음에도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이탈리아를 제외한 주요 4국(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은 호조를 나타냈다.

최근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가 펴낸 자료에 따르면 유럽차 판매는 2009년 폐차 인센티브로 인한 호조 이후 감소를 지속했으나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업체별로 보면 폭스바겐은 골프·티구안의 호조로 타 모델의 부진을 상쇄했으며, 스코다는 래피드의 신차 효과로 판매가 증가했다. 르노그룹은 다치아 산데로와 로간, 르노 캡처 등 소형 신차가 판매 증가를 견인하며 호조를 보였다. 다임러 그룹은 스마트가 부진했으나 메르세데스 벤츠 CLA 쿠페, E 클래스의 신차 효과로 증가세를 보였다.

비유럽 업계 중에는 GM과 토요타, 닛산 등이 호조를 보였고 포드는 부진했다. 포드는 B-MAX, C-MAX가 신차 효과를 보고 있으나 독일과 프랑스에서 부진한 것이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GM은 오펠과 쉐보레 등 전 브랜드가 좋은 판매를 보였다.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모델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RAV4, 아우리스 등 주력 차종의 호조로 판매 증가를 나타냈다. 현대차는 올해 1~10월 누적 판매에서 전년 대비 1.6%포인트 감소했고 기아차는 0.5%포인트 증가했다. /동소연기자

정몽구 회장,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생산 현장 점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23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현대하이스코 당진 제2냉연공장 등을 방문, 초고장력 강판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품질을 점검했다. /현대제철 제공

<[illegible] 중·소형SUV 중고차 시세>

단위: 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투싼ix	1,760	1,810	1,930	2,030	2,270
	싼타페 DM				3,070	3,170
기아	스포티지R		1,920	2,070	2,150	2,130
	뉴 쏘렌토R				2,810	2,870
쉐보레	캡티바			2,170	2,280	
르노삼성	뉴 QM5			2,200	2,160	2,690
쌍용	코란도C			1,830	1,960	2,160
폭스바겐	티구안	2,340	2,800	3,090	3,510	3,850
BMW	X1		3,250	3,660	3,750	4,400
	뉴X3			4,590	4,810	5,190
지프	체로키			3,710	4,710	4,720
벤츠	GLK-클래스		3,710		4,420	5,16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세계 첫 사이클 리스트 감지
액티브 하이빔 컨트롤 진화
후측면 30m내 물체 감지까지

도로 위의 평화주의자

엄의대의 차차차

볼보 세단 S60 2014년형

볼보의 중형 세단 S60이 새로운 디자인과 장비를 갖추고 2014년형으로 진화했다. 듀얼 헤드램프를 달았던 구형에 비해 싱글 헤드램프로 바꾼 앞모습은 심플하다. 여기에 크롬 장식과 함께 LED 주간주행등, LED 테일램프를 더해 세련미를 높였다.

실내에서는 달라진 계기반이 눈에 띈다. V40에 먼저 적용됐던 '어댑티브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운전자가 퍼포먼스, 엘리강스, 에코 등 3가지 모드로 변경할 수 있는 게 특징.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시인성이 높아져 좋은 점수를 줄 만하다.

첨단 안전 시스템도 추가됐다. 올해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됐던 세계 최초의 '사이클 리스트 감지 시스템'은 자전거를 타는 이가 자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 경우 차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킨다. 이전까지는 앞차 외에 보행자를 감지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자동차도 사람도 아닌 자전거를 감지함으로써 좀 더 확실한 안전성을 갖추게 됐다.

액티브 하이빔 컨트롤은 2세대로 진화했다. 이 장비는 단순히 맞은편 차량이 있을 때 상향등을 하향등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맞은편 차량의 위치를 계산해 필요한 만큼만 상향등의 차단 범위를 조절한다. S80과 XC60에는 상위 모델에만 적용됐지만 S60에는 전 모델 기본 장착이다.

후측면 접근 차량 경고 시스템(CTA)도 추가됐다. CTA는 뒤 범퍼 양쪽에 내장된 레이더 센서가 후측면 30m 범위 내의 물체를 감지, 뒤쪽에서 접근하는 차가 있을 때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준다.

파워트레인은 기존 모델의 것을 그대로 활용했다. 최고 출력 163마력, 최대 토크 40.8kg·m의 2.0ℓ 디젤 엔진은 치고 나가는 특성이 뛰어난 덕에 가속이 시원스럽다. 소음이 약간 크긴 하지만 토크 감각은 충분하다.

그러나 BMW 320d가 8단 자동변속기를 얹은 반면 S60은 6단 자동변속기인 탓에 연비에서 불리하다. 실제로 S60의 복합 연비는 ℓ당 14.0km로 320d의 18.5km에 한참 못 미친다. 도심 연비는 320d가 16.4km이고 S60이 12.2km이며 고속도로 역시 320d 22.1km, S60 17.1km로 모두 320d의 완승이다.

결국 볼보에 주어진 과제는 S60의 훌륭한 토크 감각을 빛내줄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변속기의 다단화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한 6단보다 더 세분화된 정밀한 변속기가 필요해 보인다. /ferrari5@metroseoul.co.kr

신형 제네시스 '돌풍'…하루 3500대 계약

신형 제네시스가 데뷔 이전부터 뜨거운 돌풍몰이에 나서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19일부터 전국 현대차 지점을 통해 사전 계약에 들어간 신형 제네시스가 계약 실시 하루 만에 3500대를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신형 제네시스가 기록한 사전 계약 첫날 3500대 돌파 기록은 국내 대형차급 시장 역대 최대 실적일 뿐 아니라 2010년 그랜저(7115대) 이후 출시된 현대차 모델 중에서도 최대 실적이다.

이는 국내시장에서 수입차를 포함한 전체 대형차급의 월평균 판매량이 7500대 수준인 점, 올해 제네시스의 월평균 판매 대수가 900여 대인 점 등을 고려하면 놀라운 기록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특히 신형 제네시스가 단 하루 만에 기록한 3500대는 경쟁 수입차들의 연간 실적과 비슷한 수준으로 고급 프리미엄 시장에 새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지난 22일까지 신형 제네시스의 누적 사전 계약 대수가 5200여 대로 집계돼 앞으로의 판매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전 계약 고객을 분석한 결과 30~40대의 비중이 기존 대비 5% 늘어난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신형 제네시스의 역동적인 디자인과 독일 뉘르부르크링 서킷에서 혹독한 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주행 성능이 젊은 연령층에게도 큰 매력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신형 제네시스의 디자인 및 신기술을 관람하고 실제 차량을 시승할 수 있는 '더 제네시스(THE GENESIS) 쇼룸'을 서울 청담동 비욘드 뮤지엄과 부산 해운대 인포레 전시관에서 각각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정용채기자

'잃어버린 20년, 일본' 답습할 것인가

정론탁설

유병철 <언론인>

냉각된 정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분수령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있었으나 허사가 됐다. 오히려 더욱 꼬여가고 있다. 30여 분간의 시정연설 내내 민주당은 단 한 번의 박수는커녕 시종 썰렁한 표정이었고 그나마 32명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통합진보당은 정당 해체를 항의하는 마스크를 하고 침묵 시위를 벌였다.

심지어 "민주주의를 배우러 왔다"는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보여줄 것은 다 보여주며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는 정치 혐오증에 더해 '국회 해산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여야가 조금도 의식하지 않는 것 같다.

사실 정쟁에 빠져 혹독한 경험을 한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지난 1990년 이후 20여 년 동안 14명의 총리가 바뀔 만큼 정치적으로 혼미를 거듭했다. 이 기간에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거나 기껏해야 1~2%에 그쳤다. 1980년대 80%대였던 중산층이 30%까지 내려갔다. 물론 중국의 부상도 있지만 저성장의 그늘 아래 세계경제 2위의 자리를 내줬다. 여기에다 천재지변까지 겹쳐 위기의 나라가 돼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보냈다.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수에 매달려 인기몰이를 하면서 일본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엔화 공급으로 경기를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집단자위권을 실행하기 위해 미·일 공조를 다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권 2기를 맞아 갖가지 진통을 겪으면서 바야흐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 150주년을 맞아 국민 위주의 정치철학을 공부 중이다. 또한 중국은 새로운 국가비전을 담은 '시진핑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이 쉴 새 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쟁으로 국력을 소모 중이다. 민생경제 저성장의 그늘 속에 실업대란을 조금도 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민경제는 바닥을 치고 가계부채 급증으로 중산층이 무너지는 중이다. 정치권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국민적인 원성이 들끓고 있으나 마이동풍이다. 결국 우리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세계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여기에 순응하면 흥하고 역행하면 망한다는 신해혁명을 주도한 쑨원(孫文)의 말이 새삼스럽다.

포토프리즘 '연평도의 상흔, 어찌 잊으랴'

연평도 포격 도발 3주기를 하루 앞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갤러리에서 시민들이 '연평도 포격 도발 3주년 특별 사진전'을 유심히 관람하고 있다. 서울특별시호국보훈단체연합회는 3년 전 발생한 북한의 기습적인 연평도 포격에 대응하다 전사한 해병 장병들을 추모하고, 국민의 호국·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계획했다고 밝혔다. /손진영기자 son@

시간제일자리, 대기업의 꼼수

뉴스룸에서

이국명 <경제산업부장>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의 한 노인이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여기서 백 보 떨어진 곳에 가서 나무를 해오겠느냐, 아니면 힘이 들더라도 백 리 떨어진 곳에 가서 해오겠느냐."

아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백 보 떨어진 곳에서 해오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가까운 곳에서는 언제든지 나무를 해올 수 있다. 그러나 백 리 떨어진 곳에 있는 나무는 다른 사람이 먼저 베어갈지도 모르니, 그곳의 땔감부터 가져와야 근처의 땔감이 우리가 비축해놓은 것처럼 남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나라 임신사가 지은 '속맹자(續孟子)'에 나오는 '교자채신(敎子採薪)'의 가르침이다.

정부가 최근 경력단절 여성과 퇴직한 전문직 장년층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에서 93만 개의 일자리를 시간선택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일하면서 정년은 보장되고 4대 보험과 복리후생 등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교사·공기업 직원 등 공공 부문에 1만6500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삼성·롯데·신세계 등 대기업들도 26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열어 정부 정책에 적극 발맞추기로 했다.

하지만 실상은 정부의 계획과는 크게 다른 듯하다.

내년 공공기관에서 새로 선보이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대부분이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단순 직무다. 기업들이 박람회를 통해 뽑는 분야도 고객 상담·판매·매장 관리·사무 지원 등 소위 '말단' 업무에 국한돼 있다.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는 질 나쁜 일자리 나누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이어 시간선택제 근로자라는 또 다른 계층 간의 갈등이 생길 소지도 많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유연한 근로 문화를 조성하려는 애초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목적은 온데간데없이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정책 목표에 짜 맞추려는 듯한 인상마저 강하게 풍긴다.

3000여 년 전 춘추시대 노인처럼 먼 곳까지 나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대신 눈앞에 놓여 있는 손쉬운 일자리로 숫자 놀음에만 매달린 것은 아닌지 의문도 든다.

'무슨 일이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근본적인 처방에 힘써야 한다'고 가르친 '교자채신'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

소인국 릴리퍼트의 비극

인문학 산책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소인(小人)'이라는 말과 '소인배(小人輩)'라는 말은 그 격이 다르다.

하나는 자신을 낮춰 겸양의 예를 갖추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 좁고 생각 얇은 자에 대한 경멸이 담겨있다.

'소인'이라는 말을 하인이 쓰면, 이를 줄인 '쇤'과 아무개의 집이나 위치를 가리키는 '네'가 붙어 '쇤네'가 됐다. 이건 겸손의 자세를 뜻하기보다는 신분차별이 존재했던 시대에 하층민의 자존감을 박탈하는 폭력의 산물이었다.

유교 윤리를 일상의 속성으로 익히며 살았던 이들은 자신을 '소인'이라고 말하는 경우일지라도 '대인(大人)'의 풍모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그래서 대인이라는 글자 옆에는 무리를 뜻하는 '배(輩)' 자가 붙지 않는다. 몽골의 '칸'도 '크다'는 뜻에서 나왔고, '누르하치'도 누리(누르)를 다스리는 큰(하) 지도자(치)라는 의미다.

18세기 초 영국의 조너선 스위프트가 쓴 '걸리버 여행기'는 일종의 판타지 소설인데, 실제로는 소인국 릴리퍼트와 거인국 브롭딩나그를 등장시켜 영국 정치를 풍자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릴리퍼트의 경우만 보자면 구두 굽을 높게 하는 자들과 낮게 하는 자들이 서로 양편으로 갈려 정파 싸움을 벌였고, 이웃 소인국과 전쟁을 하게 되는 이유라는 것도 달걀을 어느 쪽에서부터 깨 먹는 것이 올바른가를 놓고 견해가 갈렸기 때문이다.

이 작품 곳곳에는 이렇게 별 시시껄렁한 걸 가지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려는 이들에 대한 작가의 비관과 풍자가 넘쳐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한 소인배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인국에 표류한 걸리버가 눈을 떠보니 자신의 온몸이 포박돼 있음을 알게 되는 장면은 그런 상황을 보여준다. 고귀한 이상과 남다른 안목,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도 소인배들이 이런 사람들을 밧줄로 꽁꽁 묶어 꼼짝 못 하게 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소인국 릴리퍼트'가 되고 만다. 이 나라를 지키는 데 여러 기여를 했던 걸리버는 궁전 그리고 여자 문제와 관련한 악의적인 모함과 음모에 걸려 반역죄로 처벌될 위기에 처했다가 결국 탈출하게 된다.

어떤 곳이든 '대인의 풍모'를 갖춘 이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고통과 혼란을 겪게 된다. 속 좁은 소인배들이 판을 치는 곳에서는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쇤네'라고 아뢰지 않으면 예기치 않던 고초를 겪을 수도 있다. 릴리퍼트를 닮은 나라 찾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볼드윈의 입방정

기자수첩

조선미 <글로벌부 기자>

최근 미국 할리우드 스타 알렉 볼드윈이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속어를 내뱉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뉴욕에서 연예 전문매체 카메라기자의 촬영에 화를 내며 언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패것(faggot·장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화근이었다. 패것은 남자 동성애자를 비하할 때 사용되는 단어다. 과거 영국에서 동성애자를 화형에 처할 때 장작에 불을 지펴 사용한 데서 따왔다.

볼드윈과 입씨름을 벌인 매체는 이후 그가 욕하는 모습을 인터넷에 그대로 올렸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볼드윈이 성적소수자들을 공개적으로 무시했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논란이 커지자 볼드윈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장작' 발언으로 새까맣게 타들어 간 이들의 마음에 볼드윈의 사과는 잘 전해 졌을까?

한국에서도 정치인과 연예인 등 소위 공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실언을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막말 파문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정치인도 있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연예인도 눈에 띈다. 물론 공인도 사람이기에 당연히 말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발언의 파급력과 언론 노출 빈도를 고려할 때 이들의 말실수에 관대할 수만은 없다. 공인의 발언은 다양한 언론매체와 온라인 공간을 통해 수차례 반복되고 재생산돼 상처 입은 사람들의 가슴에 소금을 뿌리기 때문이다. 공인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더욱 신중하길 바란다.

해외 항공사 '겨울특가' 손짓

영국·에미레이트항공 할인 에어캐나다 '자유여행' 유혹

12월을 앞두고 항공사들이 겨울 여행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영국항공은 오는 29일까지 유럽행 특가 항공권 3종 의 할인 행사를 벌인다. 특가 항공권은 이코노미(114만2200원)·프리미엄 이코노미(156만2200원)·비즈니스 클래스(277만9400원) 등 공항 이용료와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3종이며 내년 3월 31일까지의 총 65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에미레이트항공은 오는 30일까지 최대 25%의 할인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다음달 31일과 내년 1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월~목요일 사이에 인천을 출발하는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에 한해 특가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겨울 시즌에 여행하기 좋은 두바이 노선은 세금 등을 모두 포함해 128만91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에어캐나다는 지난 9월 출시한 캐나다 자유여행 전문 브랜드 '에어캐나다 홀리데이'를 통해 '캐나다 윈터 원더랜드' 패키지를 출시했다. 패키지는 밴쿠버 자유여행 상품과 스키 자유여행 상품 2가지 테마로 구성돼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스무디킹 "산타쿠폰 받으세요"

31일까지 겨울메뉴 구매시

글로벌 넘버원 오리지널 스무디 브랜드 '스무디킹'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22일부터 겨울 시즌 메뉴 구매 고객에게 스무디 사이즈업 및 커피·건강기능식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타쿠폰'을 증정한다.

겨울 시즌 메뉴인 '카카오 익스트림 스무디', '크랜베리 익스트림 스무디', '핫 루르즈티'(4종)를 구매하면 신제품의 사이즈업 쿠폰과 아메리카노와 건강기능식품 3종 등의 할인쿠폰이 든 산타쿠폰을 31일까지 제공한다. 쿠폰 사용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스무디킹 홈페이지(www.smoothieking.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서울로얄호텔 '뷔페가 예술'이네

카페&다이닝 베르자뎅 연말 특선메뉴 선봬

서울 명동에 위치한 서울로얄호텔이 카페 다이닝 베르자뎅에서 품격 높은 서비스와 엄선된 요리로 구성된 세미뷔페·앙뜨레 특선 메뉴를 새롭게 선보인다.

우선 호텔은 연말을 맞아 25일부터 볼로냐식 라자냐, 피자 가리비 카르파치오 등 15가지로 구성된 세미뷔페와 함께 이탈리안 음식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파스타 요리와 매콤한 소스로 맛을 낸 디아블로 저킨, 신선한 생선을 엄선해 그릴에 구운 생선요리, 최상의 한우를 이용한 등심과 안심스테이크 등의 메인요리를 제공한다.

가격은 세금을 포함해 3만5000~5만5000원이며 영업 시간은 오후 5시30분~7시30분, 오후 8~10시까지 2부로 나눠진다.

아울러 호텔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아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X마스 디너 스페셜 메뉴'도 준비 중이다.

이탈리안 스타일의 안심스테이크로 구성된 스페셜A와 세계 3대 진미와 최상의 한우 안심스테이크로 구성된 스페셜S 두 가지 메뉴로 구성되며 가격은 세금을 포함해 스페셜A가 7만7000원, 스페셜S가 9만9000원이다. 또 스페셜S 메뉴를 주문하면 칵테일 1잔이 무료로 제공된다. 문의: 02)2129-5806~7

/황재용기자

제주신라호텔 '에어텔 패키지' 실속있네

제주신라호텔이 12월 첫 겨울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항공·숙박·식사까지 한 번에 해결 가능한 '에어텔 패키지'(2박 상품)를 선보인다.

다음달 1일부터 5일 사이에 투숙 가능한 이번 에어텔 패키지에는 본관 스탠다드 객실 2박과 2인 왕복 항공권, 2인 조식이 제공된다. 또 패키지는 호텔 예약과 동시에 항공권 예약이 이뤄지며 제주공항과 호텔을 편안하게 오갈 수 있는 왕복 셔틀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따뜻한 야외 노천 스파와 글라이트 스위밍을 횟수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야외 온수풀과 자쿠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더불어 어린이 투숙객에게 신라 테디베어 등을 특별 선물로 제공한다.

/황재용기자

던킨도너츠 "더 고소한 라떼"

던킨도너츠(www.dunkindonuts.co.kr)는 본격적인 겨울을 맞이 달콤함으로 추위를 따뜻하게 녹여 줄 '더 고소한 라떼 3종'을 한정 출시한다.

제품에 함유된 프랄린은 아몬드와 헤이즐넛을 끓는 설탕물에 배뜨린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견과류를 곱게 갈아 다크나 밀크 초콜릿으로 코팅한 것으로 달달하고 고소한 맛

을 자랑한다. 전국 직영점에서 판매하며 가격은 4200원.

우유 마시면 치아 튼튼

이래서 'WHO 충치예방 식품'

충치 원인 되는 산 중화하고 카세인이 충치균 부착막고 치아 형성 돕는 칼슘도 풍부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초콜릿이나 사탕, 달콤한 케이크 등의 유혹이 이어진다. 특히 아이들은 단 음식에 대한 절제력이 어른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의 치아 건강이 걱정이다. 충치도 예방하면서 치아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식품은 없을까?

2003년 보고된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충치 예방 가능성이 있는 식품으로 우유, 자일리톨, 식물 섬유가 올랐고, 충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식품으로 경성치즈(체다치즈), 무설탕 껌도 포함됐다.

우유와 유제품에는 충치의 원인이 되는 산을 중화하는 기능이 있어 산에 의한 치아 부식을 막는다. 또 우유를 마시면 침 분비가 자극되는데, 침 속에는 치아를 다시 단단하게 하는 성분이 많이 포함돼 있어 치아 표면이 단단해지는 것도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우유 단백질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카세인은 충치를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치아의 표면에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 성분이 인산을 빠르게 중성화시키고 치아 표면의 법랑질층에 우유 속에 풍부한 미네랄을 흡착시켜 인산의 충치균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고 충치균이 치아의 표면에서 증가하는 것을 억제해준다. 카세인 이외에도 유청단백질, 락토페린, 라이소자임 등이 여러 형태로 충치 유발 박테리아와 상호작용을 하며 치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일조한다.

또 우유에 포함된 칼슘은 99%가 뼈와 치아에 존재하는데 튼튼한 치아 형성을 위해서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또 우유와 유제품은 충치나 뼈의 부식을 방지하거나 치아의 미네랄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정혜일기자

'보습의 멀티플레이어' 모여!

영양·주름개선·미백 겸한 올인원 크림들 속속 출시

갑작스러운 한파로 겨울이 다가오면서 보습 케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 피부가 수분감을 잃고 건조해지는데 이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각질은 물론 트러블이나 잔주름이 발생하기 쉽다. 그러므로 겨울철에도 촉촉한 피부 미인을 유지하려면 가장 먼저 피부 보습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뷰티업계에서는 다기능을 제공하는 똑똑한 보습 제품들이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본연의 기능인 수분 공급은 물론이고 영양 공급과 주름 개선, 피부 미백 등 부가적인 기능을 더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제품들이 속속히 출시되고 있다.

◆스킨로션·에센스, 크림이 한 번에! 단계 줄인 올인원 크림

세안 후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단계가 번거로운 귀차니스트라면 올인원 수분크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리따움'은 지난 9월 바쁜 일상 속 스킨케어 단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올인원 스킨케어 아리따움 '동안 올인원 크림' 3종을 출시했다. 비욘드에서 출시한 '리보커스 멀티 크림'도 에센스, 로션, 크림 세 기능을 한번에 제공하는 올인원 크림이다. 바쁜 아침과 귀찮은 저녁에 촉촉하고 빛나는 피부로 완성해주는 초간편 스킨케어 제품이다. 유세린의 '아쿠아포린 액티브 모이스춰라이징 크림'은 에센스와 로션, 크림,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과 피부 보정, 자외선 차단까지 한 번에 해결해준다.

◆보습+영양+피부 미백+주름 개선 기능도 올인원

'아토팜'에서 선보인 '아토팜 인텐시브 케어 MLE 에센스 미스트' 제품은 고보습 에센스 미스트로 특허 보습 포뮬러 MLE가 피부 보습 보호막을 형성해 피부 속 수분을 지켜주고 장시간 보습을 유지시켜준다. 크림 전문 브랜드 '나인틴식스티뉴욕(1960NY)'에서 출시한 '수퍼 리치 크림'은 기본적인 피부 보습과 함께 영양 공급 그리고 주름 개선 기능을 갖추고 있어 피부 고민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장경일기자 yrrhk@metroseoul.co.kr

JAL '필리핀 돕기' 마일 기부

일본항공(JAL)은 지난 8일 필리핀 중부를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해지역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 'JAL 마일리지 뱅크(JMB)' 회원을 대상으로 채리티 마일 기부를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채리티 마일 기부는 1구좌 3000마일(3000엔상당)부터 3000마일 단위로 접수할 수 있으며 다음달 15일까지 JAL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참여할 수 있다.

JAL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의 일환으로 채리티 마일을 활용한 연간 활동을 기획해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홈페이지 및 JMB 회원을 대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알리고 마일 기부를 장려해 환경 보전 및 자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02)3788-5738 /홍재원기자

올해 '한국 SCM대상' 애경산업 2관왕 지지

애경산업(대표 고광현)이 22일 한국SCM학회가 주관한 '제12회 한국 SCM 대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과 SCM 제조부문 대상 등 2관왕을 차지했다. 시상식에서 고광현(사진) 대표는 "SCM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사적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사적 관점의 중장기 개선 과제를 도출, 혁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수요에 기반한 일원화된 상품 공급 체계를 다듬어 대한민국 SCM 혁신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드라마 속 '훈남 슈트' 따라입기

베스트 갖춘 스리피스나 더블브레스트 최근 인기

요즘 드라마 속에는 훈훈한 모습으로 여심을 녹이고 있는 남자들이 대거 등장하며 그들의 연기뿐만 아니라 패션 또한 화제를 몰고 있다.

패션에 관심을 갖는 직장남성들이 늘어남에 따라 재킷·베스트와 팬츠가 갖춰진 스리피스 슈트를 선호하는 추세다. 싱글 슈트로는 스타일링에 한계를 느낀 남성들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점에서 매력적인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블랙이나 그레이 톤으로 맞춰서 세련된 클래식 비즈니스룩을 연출하거나 컬러나 디자인에 약간 변형을 준 콤비네이션으로 좀 더 패셔너블한 면모를 드러낼 수도 있다. 너무 클래식한 느낌이 부담스럽다면 재킷 대신 카디건류를 매치하면 한결 캐주얼한 느낌을 살릴 수 있다.

스리피스 슈트와 함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슈트는 단연 더블브레스트 슈트다. 기본적으로 무채색으로 톤다운시켜 깔끔한 화이트 셔츠를 매치하면 슈트의 정석을 보여줄 수 있다.

/안은영기자 ...

세컨드 가전 '오! 베이비'

'펭귄부부' 늘면서 아기전용 세탁기·살균기·쿠커 인기

한 명만 낳아 귀하게 키우는 저출산 풍조로 생활 방식을 어린 자녀에게 맞추는 '펭귄부부'가 새롭게 등장했다. 펭귄부부는 가전 제품 하나도 '아이 맞춤형'으로 구입한다. 아이 옷을 깨끗하게 삶을 수 있는 세탁기부터 음료 소독기까지 펭귄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은 생활가전을 살펴봤다.

어른 옷과 아이 옷을 구분해 빨기 위해서는 세컨드 세탁기는 필수다. 삼성전자 '세탁기 아가사랑 플러스'는 삶음 코스를 3가지로 세분화시켰다. 아기의 기저귀나 속싸개 등에는 '푹푹삶음', 타월·면 내의 세탁 시에는 '절약삶음', 오가닉 코튼 등은 '아가옷' 코스를 선택하면 된다. 헹굼 추가가 6회까지 가능해 세제 잔여물 걱정도 없다.

수시로 소독해야 하는 아기용품은 전용 스팀소독기를 이용하면 간편하다. '필립스 3-in-1 전기 스팀 소독기'는 증기의 강한 열로 유해 세균을 99.9% 제거한다. 젖병·포크 등 이유식기 소독은 물론 대용량(330ml) 젖병 6개를 동시에 살균할 수 있다. 특히 살균한 내용물을 최대 24시간 동안 멸균 상태로 유지해줘 위생적인 보관이 가능하다.

불 없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멀티쿠커는 이유식을 만들 때 유용하다. 한국지코의 '드롱기&미'는 별도 물탱크 없이 스테인리스 용기 안에서 바로 스팀 조리가 가능하고 믹싱 기능에 끓이기까지 갖춰 손쉽게 이유식을 만들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한 자녀 가정이 늘어나면서 가전제품 하나를 구매할 때도 아이에게 필요한 기능이 탑재돼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metroseoul.co.kr

배변 돕는 '광동 다비망' 출시

광동제약이 배변 고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동 다비망'을 출시했다.

제품은 식이섬유 6000mg을 함유해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며 장 건강을 돕는 프락토올리고당과 갈락토올리고당, 비타민 C 등을 함유하고 있다.

또 제품은 20~30대 여성의 입맛을 고려해 사과와 푸룬의 맛을 구현했으며 소포장 형태로 판매돼 휴대가 간편하다.

/정재율기자

star bag

일곱살 연하 여친과 결혼

힙합 뮤지션 **MC스나이퍼**가 품절남이 됐다.

그는 24일 오후 1시30분 서울 논현동 웨딩의 전당 뉴힐탑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일곱 살 연하의 일반인 여자친구와 4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 축가는 MC스나이퍼와 각별한 사이인 라이머가 대표로 있는 브랜뉴뮤직의 범키가 불렀다.

'히든싱어' 최다득표 우승

가수 **아이유**가 JTBC '히든싱어2'에서 역대 최다 득표로 우승했다.

23일 방송된 아이유 편에서는 영국에서 온 안나, 뮤지컬 '레미제라블'에 출연한 혼혈아 사론, 중학생 전이현 등 다양한 일반인이 아이유를 모창해 눈길을 끌었다. 아이유는 'Boo'를 부른 1라운드에서 4표, '좋은날'을 부른 2라운드에서 9표, '너랑 나'를 부른 3라운드에서 13표를 득표했다. 이어 마지막 라운드 '나만 몰랐던 이야기'에서 역대 최다인 88표를 받아 최종 우승했다.

도쿄서 팬 마련 전시회

배우 **박시후**의 팬들이 마련한 전시회가 23~24일 일본 도쿄 다이칸야마의 힐사이드테라스에서 열렸다.

'더 팬 주 위즈 디어'란 제목으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박시후가 작품을 안내하는 영상 코너를 비롯해 출연 드라마와 영화의 대본과 의상, 액세서리, 일상의 모습이 담긴 사진 등으로 구성됐다. 박시후는 영상을 통해 "처음 갖는 전시회를 통해 또 다른 박시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시트콤 '감자별' 고정출연

일본 여배우 **후지이 미나**가 tvN 일일 시트콤 '감자별 2013QR3'에 고정 출연한다.

제작진은 24일 "후지이 미나가 27일 방영될 29회에 첫 등장할 계획"이라며 "김병욱 감독의 시트콤에 출연하는 외국인 배우로는 줄리엔 강에 이어 두 번째 출연"이라고 밝혔다. 후지이 미나는 극중 여자친구 수영(서예지)을 따라 한국에 왔지만 이별 통보를 받은 줄리엔 강과 새로운 러브라인을 형성한다.

①과 ②는 22일 홍콩에서 열린 2013엠넷아시안뮤직어워드에서 공연을 펼치는 K-팝 스타들. ③은 K-팝 스타의 의상 스타일을 따라한 팬이 공연장 한 켠에 마련된 한식 브랜드 부스를 구경하는 모습. ④는 공연장에서 플래카드를 흔들며 K-팝 스타에 열광하는 아시아 팬들 사진/CJ E&M 제공

아시아 반했다 K-스타일 바람

홍콩서 열린 'MAMA'로 통해 본 K-팝 현주소

K-팝으로 대표되는 한류가 아시아에서 음악을 넘어 패션과 뷰티, 음식, 언어 등으로 외연을 넓힌 'K-스타일'로 진화하고 있다. K-팝 팬들이 한국 가수들을 좋아하면서 음악을 듣는 것뿐 아니라 영상에서 이들이 입는 옷과 화장법을 따라 하고 한식을 즐기는 등의 한국적인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2일 아시아 각지에서 온 K-팝 팬 1만여 명이 모인 2013엠넷아시안뮤직어워드(MAMA)가 열린 홍콩에서 변화하는 한류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노래 넘어 패션·뷰티까지 관심

최근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엑소는 22일 MAMA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아티스트 웰컴 미팅에서 아시아 지역 취재진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은 엑소의 음악보다는 평소 생활 습관과 패션에 주목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MAMA 공연장에서 만난 K-팝 팬 케이트(15·홍콩) 역시 "한국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드라마까지 모든 것을 좋아한다. 특별히 이유를 말하지 못하겠다. 앞으로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용돈도 열심히 모아서 한국으로 꼭 놀러가서 콘서트도 보고 싶고 관광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한때 할리우드 영화에 대한 관심이 미국 문화와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됐듯, 지금의 한류도 아시아에서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다. 아시아인들이 K-팝이 아니라 K-스타일을 소비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MAMA 콘퍼런스에 참석한 중국 최대 동영상 포털사이트 요우쿠 투도우의 부총재 양 웨이둥은 "예전에는 K-팝 팬들이 스타와 노래에 관심을 가지는 데 그쳤다면 지금은 스타의 뒷이야기, 패션,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 한국 문화 자체에 관심이 증가한 것"이라고 아시아에서의 한류의 변화를 전했다.

#현지 아직 여러 제반확대 노력해야

K-팝에 대한 관심이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대되는 현상은 경제산업적인 낙수 효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 세계 팝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이 같은 효과를 이용해 일찌감치 팬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파고드는 마케팅을 전개해왔다.

MAMA를 주최한 CJ E&M의 한 관계자는 "U2, 마돈나 등이 소속된 미국의 대형 공연 기획사 라이브네이션은 스타와 공연 계약만을 맺지 않는다. 패션, 뷰티, 자동차 등 스타와 관련된 모든 것을 활용하는 계약을 맺어 '360도 마케팅'을 펼친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형 기요기획사도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대 말부터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단순히 MD 상품을 팔던 기존과 달리 패션, 화장품, 여행 등 타 산업에 진출해 적극적인 연계를 꾀하는 것이다.

MAMA를 주최한 CJ E&M 역시 이번 공연에서 행사장에 한류스타가 광고모델로 출연하는 화장품 브랜드와 CJ그룹의 한식 브랜드 비비고 등 다른 산업과 연계한 부스를 설치해 현지 팬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식품, 영화, 공연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CJ그룹은 최근 한류 콘텐츠를 산업과 접목한 한류 비즈니스 모델을 속속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전문가들은 한류가 식지 않고 K-스타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홍콩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미디어아시아의 사장 개리 챈은 "K-팝 팬들은 기존 홍콩 젊은이들이 문화를 소비했던 방식과 다른 문화를 즐기고 있다. 그런 면에서 K-팝의 잠재력이 대단히 크다"면서도 "그러나 팬층이 어리기 때문에 팬층 확장을 위한 전략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홍콩=이진연 기자 lak742@metroseoul.co.kr

/디자인, 박은지

중국여행

천년의 중국, 백년의 중국!

- **북경** ★ 만리장성/마사지 | 4일 | 130,000부터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 **상해/항주/주가각** | 4일 | 199,000부터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 **장사/장가계/원가계** | 4일/5일/6일 | 399,000부터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 **곤명/석림/구향동굴** | 5일/6일 | 599,000부터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 **홍콩/마카오/심천** | 4일/5일 | 599,000부터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동남아여행

놀라움과 모험이 가득한 세상!

- **대만(야류, 온천, 화련)** | 4일 | 599,000부터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 **방콕/파타야** | 5일 | 299,000부터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 **푸켓** 휴양지의 여왕 | 5일/6일 | 399,000부터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 **캄보디아** | 4일/5일 | 419,000부터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 **베트남(하노이/하롱베이)** | 5일 | 399,000부터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일본여행

알뜰만족 실속 일본여행!

- **규슈 온천여행** | 3일 | 399,000부터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제외)
- **오사카** ★ 고베야경 | 3일/4일 | 399,000부터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 **북해도** | 3일/4일 | 699,000부터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 **오키나와** | 4일 | 499,000부터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www.hanatourist.com

예약문의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 1577-1212

강남점 1600-6963

크레용팝 "X-마스 콘셉트일 뿐"

의상표절 논란 일축

걸그룹 크레용팝의 크리스마스 의상 논란과 관련해 소속사 크롬엔터테인먼트 측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크롬엔터테인먼트 측은 24일 "수없이 비슷한 디자인의 크리스마스트리 의상들 중 왜 모모이로 클로버Z만 지적하는가? 크리스마스트리가 주는 상징적 이미지가 있어 크리스마스트리를 본뜬 모든 의상들은 그 상징적 이미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러 층으로 나눠진 녹색 잎 위 가장자리에 걸쳐진 눈(혹은 트리용 장식), 여기에 각종 장신구와 트리 꼭대기의 별 등은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트리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이미지의 구성 요소"라며 "크레용팝이 화보 촬영 시 착용됐던 의상은 이러한 상징적 이미지를 그대로 형상화했다"고 강조했다.

의도적인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적 이미지로 얻을 것이 없다"며 "크레용팝은 길거리 공연부터 시작해 숱한 어려움을 겪으며 이제 겨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됐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크레용팝의 이미지를 훼손하면서까지 노이즈 마케팅을 벌일 이유가 없다.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레용팝은 이전에도 헬멧 콘셉트가 모모이로 클로버Z를 모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한 차례 겪은 바 있다.

/김성준기자

지난해 12월 모모이로 클로버Z 멤버 아리아스 모모카가 입은 의상(왼쪽)과 올해 11월 크레용팝 리더 금미가 선보인 의상.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크레용팝 트위터

12월 콘서트 '화려한 성찬'

조용필·싸이 등 쟁쟁한 가수들 무대 줄이어

콘서트의 계절이 돌아왔다.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면 국내 유명 가수부터 인디밴드까지 수많은 공연이 펼쳐진다. 그야말로 '콘서트 대목'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수준이다.

◆조용필·싸이 톱스타 공연

올 연말 가장 눈길을 끄는 공연은 10년 만에 발표한 정규 19집 '헬로'로 밀리언셀러의 파워를 보여준 '가왕' 조용필의 콘서트다.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조용필 콘서트는 다음달 13~15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데뷔 이후 콘서트에 남다른 애착을 보여온 '월드스타' 싸이의 콘서트(사진)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싸이는 이번 콘서트를 앞두고 트위터를 통해 "죽지도 않고 15곡씩 하던 제가 달랑 2곡('강남스타일' '젠틀맨')으로 1년을 살았지 말입니다. 올 한 해 무지하게 애쓴 우리 격에 맞지 않는 것 딱 하루만 합시다"라고 언급해 기대감을 높였다.

이외에도 내년 데뷔 25주년을 맞는 '라이브의 황제' 이승환은 '이승환옹 특별회고전'이라는 공연을 준비 중이다. '19금(禁) 콘서트'라는 독보적 브랜드를 구축한 박진영 역시 공연을 연다.

◆ SM타운 위크, 아이돌 총출동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소속 가수들의 연말 콘서트를 대규모 릴레이 형식으로 여는 'SM타운 위크'를 연다. 이 공연은 SM 소속 가수들이 동시에 공연을 펼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날짜마다 팀별 단독 콘서트로 진행된다.

다음달 21일 샤이니의 공연을 시작으로 소녀시대(22일), 에프엑스와 엑소(24~25일), 동방신기(26~27일), 슈퍼주니어(28~29일) 등 여섯 팀이 차례로 자신만의 공연을 선보인다. SM은 공연 전부(총 8개)를 관람할 수 있는 '올 티켓', 4개 공연을 선택해 관람할 수 있는 '초이스 티켓' 등 패키지 티켓을 내놨다.

또 새로운 콘셉트의 공연을 예고한 2AM의 콘서트 '녹턴야상곡'은 다음달 7~8일 방이동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다. 박재범은 다음달 28일 부산실내체육관에서 '2013 박재범 전국투어 콘서트'를 개최하며, 정규 5집을 발표한 이적과 데뷔 10주년을 맞은 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도 연말 콘서트 대열에 합류한다.

/장의정기자 yyl@metroseoul.co.kr

러시아 음악의 참맛 보자

영국 카라비츠 지휘 맡은 '봄의 제전' 29일 공연

서울시립교향악단이 2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카라비츠의 봄의 제전: 그레이트 시리즈 IV'를 개최한다.

'봄의 제전'은 1913년 5월 29일 전설적인 무용가 니진스키가 안무를 맡고 스트라빈스키가 음악을 맡아 파리 샹젤리제 극장에서 선보인 발레 공연이다. 야만적인 춤과 파괴적인 음악은 당시 폭동에 가까울 정도로 관객들에게 충격을 줬고, 관객들은 야유를 쏟아내는 등 대소동을 벌이기까지 했다.

100년이 지난 지금, '봄의 제전'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20세기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작품에는 이전까지 잘 사용되지 않던 변칙적인 박자가 적극적으로 도입됐고, 감미로우면서도 불안한 선율 등 이전의 어떤 음악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격렬한 표현 방법이 음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공연의 지휘는 영국 본머스 심포니의 수석 지휘자 키릴 카라비츠(사진)가 맡는다. 카라비츠는 8월에 영국 최대 음악 축제인 BBC 프롬스 무대에 섰으며 지난 시즌 로열 필하모닉과 런던 필하모닉,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등에서 객원 지휘도 활발히 하고 있다.

2009년 서울시향과의 무대에서 호연을 펼친 바 있는 그는 이번 무대에서 무소륵스키, 프로코피에프, 스트라빈스키 등의 러시아 관현악 명곡을 들려주며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문의 1588-1210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18세 예나 풋풋한 감성 노래하다

새 싱글 '소 하드' 발표

소녀 프로듀서 예나가 새 싱글 '소 하드'를 발표했다.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도 탄탄한 실력을 자랑하는 예나는 이번 싱글에서 10대만의 풋풋한 감성을 표현하며 전곡을 작사·작곡·편곡해 다재다능한 뮤지션임을 입증했다.

타이틀곡 '소 하드'는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좋을지 안절부절못하는 순수한 소녀의 고민을 귀엽게 담아낸 미디엄 템포의 곡이다. '쇼 미 더 머니 2'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딘딘이 피처링을 맡았다. '소 하드' 외에 더 '너만' 등이 수록됐다. /유순호기자

연극 '환상동화' 기념공연

연극 '환상동화'가 2013 한국공연예술센터 우수 레퍼토리 시리즈 기획 공연으로 선정돼 10주년 기념 공연을 올린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이 작품은 다음달 6~15일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다시 공연된다. 이 연극은 전쟁광대, 예술광대 등 세 광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제작사는 "이번 공연은 전쟁, 사랑, 예술에 대해 한층 더 무르익은 대사와 장면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박근현기자 hyun0427@

삼성화재 '1위 스파이크'

선수들 고른 활약…현대캐피탈 꺾고 1라운드 선두 마감

대전 삼성화재 블루팡스가 천안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를 완파하고 단독 선두로 1라운드를 마감했다.

삼성화재는 24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3~2014 프로배구 V리그 1라운드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0(27-25 25-22 25-21)으로 완승했다. 이날 승리로 4연승을 달린 삼성화재는 시즌 전적 5승1패(승점 14)를 기록, 리그 단독 선두로 1라운드를 마쳤다. 반면 2연승을 마감한 현대캐피탈은 4승2패(승점 12)가 되면서 2위로 내려앉았다.

이날 경기는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두 팀의 대결로 시작 전부터 관심을 끌었다.

삼성화재는 레오 마르티네스와 박철우가 좌우 쌍포로 나섰고 고준용이 공격과 리시브를 담당했다. 이선규와 고희진이 센터라인을 구축했고, 유광우가 야전사령관으로 나섰다. 리베로로 김강녕이 먼저 코트에 들어섰다.

반면 현대캐피탈은 리버맨 아가메즈와 송준호가 공격에 나섰고 임동규는 공격과 리시브를 모두 책임졌다. 윤봉우와 최민호가 가운데를 지켰고 최태웅이 볼 배급을 담당했고, 리베로 여오현이 수비에 앞장섰다.

양 팀의 세트 점수 차는 3점으로 1세트부터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그러나 특정 선수에 집중하기보다 모든 선수를 활용한 삼성화재가 기분 좋은 완승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반면 현대캐피탈은 쉐디득점을 올린 아가메즈(26점·공격성공률 55.81%)의 활약에도 시즌 첫 연패를 기록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장윤희기자 yaw@metroseoul.co.kr

24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남자프로배구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의 경기에서 공격에 성공한 삼성화재 선수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배구 전적 24일

한국전력	2	3	우리카드
삼성화재	3	0	현대캐피탈
현대건설	1	3	GS칼텍스
인삼공사	3	1	기업은행

日세이브왕 벌써 오승환 경계?

이와세 "그 선수 잘 몰라"

일본프로야구의 독보적인 세이브왕 이와세 히토키(39·주니치 드래곤스)가 한국의 끝판왕 오승환(31·한신 타이거즈·사진)과 묘한 신경전을 펼쳤다.

벌써부터 일본 언론들이 '한신의 수호신'이라며 오승환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최고 마무리로 꼽히는 이와세가 오승환에 대해 짐짓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주목된다. 내년 시즌 센트럴리그 최고 마무리를 다툴 한·일 구원왕의 묘한 신경전이다.

일본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닛폰'은 24일 '이와세 한국 세이브왕에 무관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은 "이와세가 (상대팀) 투수는 보지 않기 때문에 (오승환에 대한) 인상은 없다. (이시이 기록인) 47세이브 기록을 갖고 있는 것도 처음 들었다. 고 무관심을 가장했다"고 전했다.

이와세는 명실공히 일본 최고 클로저다. 1999년 이후 줄곧 주니치에서 뛴 그는 통산 382세이브(53승 41패)로 일본 최다 기록 보유자다. 일본 최초로 15년 연속 50경기 이상 등판했고, 올해까지 9년 연속 30세이브 이상을 거두는 꾸준함을 보였다.

한국프로야구 최다인 277세이브를 기록한 오승환이 구원왕 이와세를 뛰어넘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현기자

아마농구 내일 '점프볼'

아마추어 농구 최강자를 가리는 농구대잔치가 열흘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치러질 이번 2013 농구대잔치는 남자1부(13팀), 남자 2부(5팀), 실업, 대학팀이 참가하는 여자부(6팀) 등 총 24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친다. /김성현기자

박인비 LPGA 올해의 선수상 영예
박인비(25·KB금융그룹)가 23일 미국 바하마스의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LPGA 연례 시상식에서 한국인 최초로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프로축구 전적 24일

서울	3	2	부산

ㄴ 득점 : 데얀 전반 ... 후반 PK 하대성 전반 ... 후반 / 부산 ... 전반 ... 후반 / 이상 부산

제주	0	1	경남

ㄴ 득점 : 강종국 후반 ... 경남

프로농구 전적 24일

SK	18	17	15	25	75
동부	20	21	15	24	80
삼성	24	17	18	10	78
인삼공사	12	16	16	22	66
전자랜드	16	21	17	13	67
KT	14	17	14	18	63
국민은행	15	22	10	23	70
우리은행	16	23	22	14	75

'한국판 쿨러닝' 소치서 일낸다

봅슬레이 대표팀 아메리카컵 남자 2인승 금메달

'한국판 쿨러닝' 썰매 대표팀이 아메리카컵에서 연이어 낭보를 전했다.

파일럿 원윤종(28)과 브레이크맨 서영우(23)로 구성된 봅슬레이 남자 2인승 대표팀은 24일 미국 유타주 파크시티에서 열린 2013~2014 아메리카컵 5차 대회에서 두 차례 레이스 합계 1분37초41 만에 결승선을 통과, 프랑스(1분37초50)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원윤종은 지난 시즌 막판이던 올해 3월 아메리카컵에서 한국 봅슬레이 사상 첫 금메달을 두 차례나 목에 건 바 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올 시즌에도 역대 세 번째 금메달을 수확, 대륙별 대회에서는 정상급 실력을 갖췄음을 확인했다. /김성현기자